



여운기

『학력사항』

- 춘천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 더블린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주아일랜드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주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
- 주 체코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2등서기관
- 1990년도 제24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I. 시작하면서

어느 덧 낙엽이 거리를 굴러 쌓이고 바람이 차다. 우주의 정확한 순환질서 속에 가을도 저물어 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1990년, 지금까지의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고 중대한 사건을 나에게 가져다 준 이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외무고시 합격의 기쁨, 사랑의 완성과 제2의 인생의 막이 오른 이 해가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쯤 고시생들의 발길은 더욱 바빠지고 있을 것이다. 이때쯤이 되면 더욱 황급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고시촌의 분위기이다. 나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시동지들이 산사에서, 고시촌에서, 대학도서관에서, 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자신과의 외로운 투쟁과 타협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남은 수험기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처음 시작하는 고시 초년생에게는 좋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II. 고향에서

나는 1960년 5월 20일 샘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 곳은 강원도청 소재이며, 호반의 도시로 알려진(?) 봄내 시(춘천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농촌으로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예로부터 샘밭 밭田 하여 샘밭으로 불려지고 있는 곳이다.

소양강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말고 차가운 강줄기가 마을앞을 유유히 감아돌고, 뒤로는 별관 끝으로 삼막골, 마적산, 무지골, 백골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어 風光이 좋은 곳이다. 봄내(춘천)시와는 나지막한 소나무산을 사이로 경계를 이룬다. 그 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키웠고 촌놈으로서의 정서를 간직할 수 있었다.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는 세계 최고의 명문(민거나 말거나) 춘천고등학교를 다녔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별문제없이 학업에 열중하였으나, 고교 2학년 후반기부터 나의 행로에는 亡兆가 비치기 시작했다.

가정평편상 시골의 집을 팔고 시내 전세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학교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少時적 우등생이었던 모습은 그 어느 구석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Ⅲ. 1979년~1980년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입시에 고배를 마시고 나는 그 날의 참담함을 만끽해야 했다.

“과거 열아홉 해 중 그 어느 순간이라도 오늘을 나를 예감한 적이 있는가?”

패배감이라는 어설피기만한 감정이 현재의 나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멸망을 위한 항해의 돛을 올려야만 하는가?

잔인하게 연마된 날카로운 칼날은 내목을 치고, 잘리운 목줄기는 한 방울의 피도 솟구칠 수 없고, 흐르다 말고 허영계 얼어붙은 산골짜기의 물줄이 된다.

동정과 비웃음이 상제되고 절망과 비통과 좌절만이 온몸을 휘감아 올린다.

이제 무엇을 어찌 한단 말인가? 死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기꺼이 死하자.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오명을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다음의 각본은 어떤 것인가? 어디론지 가긴 가야 한다. 지난 날의 徒勞는 망각의 세계로 밀어넣고...”

-눈물 없는 울음속에서(1979년 1월 26일 일기 중에서)

며칠간을 죽음보다 괴로운 나날 속에 이 눈치 저 눈치 건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나와 서울이라는 동네에 잠입하였다. 종로에 있는 한 직업안내소에서 주머지 밑천을 툭툭 털어 소개받아, 용수철을 만드는 아주 작은 부품공장에 견습공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애초에 상경할 때는 나혼자 뭔가 보여 주겠다는 각오로 집을 나왔으나 막상 넓디넓은 서울하늘 아래 내가 설 땅은 없었다. 공장주가 제공하는 침식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이 내게는 영원한 이방인으로 느껴졌다. 그 동안 내가 간직 해 왔던 서울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약 두평 남짓한 헛간같은 곳에 6~7명이 함께 기거하는 기숙사는 어두컴컴한 백열등, 코를 찌르는 땀내, 곰팡내, 때국물이 반들반들 배어 있는 카시미론이불 두어장, 습기가 배어 얼룩덜룩 찢어져 버린 벽지와 천장, 이러한 절망적 환경이 전부였다. 결국 이틀밤을 한잠 못 자고 꾸그리고 앉아 고민고민 하다가 양복을 쪽 빼입고 고원들 위에 군림하는 소위 총무라는 자한테 사정사정하여 2박 3일간의 견습공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다. 집에서는 난리

가 낮았겠지만 당시 나의 존재가 폭탄같은 존재라서 적당한 변명으로 얼버무려 그냥 넘어갔다(이 대목은 몇몇 고향친구들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음을 밝혀 둔다).

그 뒤 재수를 항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집안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똑같은 공부를 또 한다는 게 지겹게 생각되어 취직기로 마음먹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고졸학력으로 취직은 어려웠다. 그러다가 교육공무원으로 계시는 형님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서 1979년 4월 4일 국민학교 임시강사로 임용되어 강화도 화천군 논미국민학교 추곡분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교생이 모두 여섯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분교로서, 현대문명이 가져다 준 문화적利器의 혜택이라고는 라디오 청취 밖에 없는 그런 벽지였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十代의 마지막 해를 보내야 했고 그 의미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육지속의 孤島에서 생활하면서 비로소 나는 철이 들어갔고 가정의 그늘을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곳이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님을 직시하고 그 곳의 탈출을 위해 고시를 생각해 되었다. 중학교 시절 모 일간지에 외교관에 관한 기획취재가 연재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것을 거의 빠짐없이 흥미를 갖고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나도 오대양육대주를 넘나들며 유창한 외국어로 조국을 대변하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겠노라고 마음 먹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실패와 함께 그 꿈은 영영 물건너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시에 관한 잡지와 참고서적들을 읽고 나니 어느 정도 고시라는 괴물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행시나 외

시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수많은 사연과 파노라마가 숨어있는 사법시험의 대열에 동참기로 결심했다. 다 쓰러져 가는 산골학교의 조그만 관사 방 한 구석에 국민학생용 책걸상 서너개를 붙여놓고 희미한 남폿불을 밤새 태워가며 책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풋내기에게 고시가 그렇게 만만히 다가올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찰사무직 공채가 9월경에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시를 위한 1차적 목적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해 9월 9일 검찰직 5급 을류 공채에서 최연소자로 합격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다. 그 때의 기쁨은 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것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다. 가래골의 모든 학부형들은 물론 본교의 교직원들,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남은 임기동안 여섯명의 어린 제자들과 자연을 만끽하면서 즐겁기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변혁의 서막이 울려지던 그 해가 바로 내게도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산골에 처박힌 벽지 학교 강사와 정치관이 무슨 상관인가 있으랴.

다음해 3월 가래골 주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뒤로 하고 나는 구비구비 이제는 낮익은 산길을 걸어서 1년간 정든 그 골짜기를 나왔다.

IV. 1980년~1985년

3월과 4월에 걸쳐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1980년 7월 1일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1년뒤에 방위 소집되어 휴직하고 복무한 후, 1982년 11월에 복직하여 고향인 춘천지검에 그무하

였다. 점차 직장생활에 익숙해지고 점차 하나의 사회인으로 내 모습은 굳어 가고 있었다. 직장동료들과 어울리고, 테니스에 푹 빠져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거의 항상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으로 테니스코트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공부하고는 이제 원수라도 진 것처럼 운동과 일에만 정신을 쏟았다. 테니스만으로 부족하여 입사후배이며 고향선배인 G형과 함께 저녁에는 헬스클럽과 유도도장을 찾아 땀에 흠뻑 젖었다. 그러던 가운데 서서히 고시를 향한 향수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무렵 고교 동기생들 중에서 사시 또는 행시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에게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온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기 시작했다. 그 돌파구의 하나로 이성과의 데이트를 추구해 보고자 하였으나 되는게 없었다. 그 갈등의 와중에서 중학교 동창인 S양과 H양은 진솔한 말 상대가 되어 주었고 훌륭한 충고자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1984년 고등학교 동창생인 P가 검찰실무수습차 내가 근무하던 춘천지방검찰청에 부임하여 왔다. 물론 반갑기도 하였지만 내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을 못갔기 때문에 나는 말단 공무원인 것이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이 현실의 껍질을 벗자. 이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공기를 흡입하자. 그리하여 그해 가을 나는 대입체력장 검사 원서를 제출하고 얼굴 아는 놈 하나없는 후배들과 함께 체력검사를 받고 대입예비고사를 준비하였다.

V. 1985년~1987년

이 때부터 고독한 방랑자의 서울여행이 시작되고 나 자신과의 씁없는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晝耕夜讀의 힘겨운 이중생활을 나 스스로 택한 것이라 그 어떤 불평도 있을 수가 없었다. 기필코 둘다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하나 더하여 고시공부를 곁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음만은 굴뚝같아도 현실적인 결과는 모래성 쌓기와 마찬가지로였다. 그 가운데 나 개인의 능력에 한계를 서서히 느끼면서 發想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현직을 고려하여 사법시험을 공부하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웬지 모르게 지난날의 깨어진 꿈조각들이 다시 하나 둘 모여들며 나를 자꾸 유혹하였다. 그리고 한국외대의 분위기 역시 대외지향적인 것이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은 희망이 자꾸 커져 갔다.

그러나 내가 처음 서울의 하늘밑에서 운명처럼 만난 J는 나의 모험주의적 발상에 회의를 갖고 현실에의 순응을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친구이며 대화자로서 외로운 촌놈을 사랑할 줄 아는 포근함이 있었으나, 역시 소박한 여성일 뿐이었다. 현실과 이상의 골짜기에서 나는 약 2년의 세월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면서 고시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미련을 갖고, 사법시험 감사관을 자원하여 나가보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이 제20회 외무고시부터 원서를 내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찾으며 前科만 올려 놓고 있었다.

1987년 5월이 되면서 J와의 외교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승진할 때가 되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 즉 승진을 받아들이고 계속 검찰공무원으로 생

활할 것인지, 아니면 辭職하고 대학공부와 고시공부에만 전념하여 한바탕 승부를 낼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 누구도 후자와 같은 모험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벌써 내 나이가 스물여덟이었으니,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고시계로 입문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사흘이 멀다하고 소위 ‘일곱출반’을 썼다 찢었다 하였다. 이러한 변민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몰입하여 J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J와 헤어진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고 업무가 끝나기가 무섭게 테니스코트에 나가 애꿎은 테니스볼만 두들겨 췌다. 그 어떤 짓을 해도 마음 한구석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다.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되었다. 대학도 3학년 1학기가 끝나 가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제22회 외무고시도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월이 다 저물어 가는 날 마침내 나는 미련없이 ‘일곱출반’을 그려가지고 인사담당자에게 공무원증과 사법경찰관리지명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소속국 과장님께 辭職의 뜻을 말씀드렸다.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7년 7월 4일자로 약 7년간의 검찰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마련해 준 환송회식에서 나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과거는 흘러갔다.”를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앞으로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검찰동기 및 선후배들이 베풀어 준 끈끈한 정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VI. 1987년~1989년

대한민국 온 천지가 88년 서울올림픽 준비로 들뜨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던 1987년의 여름을 나는 학교도서관에서 모든 걸 잊고, 아니, 잊어보려고 미친듯이 책과 더위와 씨름하며 보냈다. 쌍팔년에 동시에 외시 2차과목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9월 초까지 경제학을 제외한 전과목에 대한 서브노트 작성되고 어느 정도 외시의 윤곽이 잡혀가는 듯했다. 어느 새 벌써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굴며 10월이 다가왔다. 2차준비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뒤늦게 1차를 시작하였다.

헌법과 영어는 전부터 친숙한 과목이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정치학과 문화사 국사 등이 의외로 양이 많고 범위가 넓어 시간이 갈수록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치학은 1학년 때 개론강의를 들은 것 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 기초를 닦아 가는데 술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당초 사직을 하고 고시공부를 시작할 때의 각오와 목표는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88년 제22회 외시에서 나는 1차시험조차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는 평균 3점 미달로 별 하나를 더 달고 말았다. 자기과약에 무지한 과욕이 결국 낙방의 쓴 잔을 또 하나 안겨 준 것이다. 다시 또 마음이 動하기 시작했다. 사시와 행시의 대열을 기웃거리다 전과나 하나 더 늘리고 성과없이 쌍팔년을 반이나 허비해 버렸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차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1차조차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깎아 세우고 있었다.

1988년 여름, 올림픽으로 떠들썩하던 때 나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23회 외시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의 수정을 가하여 2개년 계획으로 바꾸었다. 작년에 의욕만 앞세운

계획이 형편없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하였기 때문이다. 1차과목을 기본서중심으로 착실히 읽어가며 정리하고 또 반복하여 숙독하였다. 그리고 10월부터 각 과목별 문제집을 병행하여 문제중심의 체제를 유지하여 갔다.

1989년 1월 초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험일정이 공고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약 20일간 남은 시간을 치밀하게 하여 각 과목을 복습하였다.

1주일을 단위로 두 세과목씩 묶어 모의시험 문제로 실전평가를 계속해 가면서 틀린 문제의 관계된 부분을 용단폭격하듯 훑어 나갔다. 마침내 1989년 1월 27일 한양공고에서 제24회 외시 1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예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느꼈다. 다소 흥분한 마음으로 신림동 고시촌 골방으로 돌아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다. 2차합격이 어차피 어려운데 그냥 놓아버릴까 하다가 최선을 다하여 과락이나 면해 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그동안 해놓은 서브노트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초조함을 달래려고 혼자 논쟁인 관악산의 절경을 헤메고 다니기도 하였다.

2월 14일 저녁 견화와 함께 상원서적에서 1차합격을 마음먹고 확인한 순간 그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2차시험이 불과 일주일 후였기 때문에 좋아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당락에 관계없이 경험삼아 한번 끝까지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가진 것 없이 2차시험장에 연 4일을 버티고 앉아 답안지를 채워 나갔다. 수필식의 어설픈 답안이었지만 그래도 2시간씩 모든 시간을 바쁘게 써 내려갔다.

결과는 물론 불합격이었으나 과락이 하나도 없었다. 합격점 62점에서 약 10점차인 52.04점이 나의 평균성적이었다. 작년도 전반기에 쓸데없이 방황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하였다. 하

여간 고무적인 제23회 외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틀림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1989년 대학을 졸업한 후 당분간 고시원에 계속 머물다가 3월 새학기가 되면서 다시 한 국외대 외시연구실에 입실하였다. 새로운 학습계획을 세우고 여럿이 모여 그룹 스터디도 계획하였다.

고시연구반 내에 1차 합격한 2차 준비자들이 상당수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도와가며 효과적인 수험생활이 가능하였고, 주기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 교수님들의 지적도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나 당초 1차부담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2차시험의 준비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2차과목에 대한 공부는 기본서를 3~4회독하고 영성한 서브노트를 작성한게 전부였고, 그나마 3년 전에 한 것이라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기본서들은 이미 外試界서는 한물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2차대비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대개편이 필요함을 느꼈다.

외시연구실에는 선배들이 공부하고 남겨 놓은 귀중한 외시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2차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우선 각 과목의 서브노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하여 복사하고 연구실 내에 2차준비생들끼리 합심하여 3년간의 3개 고시잡지와 새로이 창간된 하나의 고시잡지에서 주요논문과 예상문제를 발췌하여 찾아보기 쉽게 책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것은 방대한 작업이었으나 모두가 합격을 향한 투지와 신념으로 잘 협조하여 약 한달만에 완성하

였다. 이것을 책꽂이에 꽂아 놓으니 책상이 째졌다. 보기만 해도 든든했고 당장 내일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였다.

벌써 80년대의 마지막 해는 6월호 접어두고 더위가 찾아들고 있었다. 점점 책을 대하기가 힘들고 사고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어 모두가 외출하고 연구실 내에 홀로 남아 깊어가는 여름밤을 밝히다 보면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더위가 나를 괴롭혔다. 특히 辭職하고 J와 작별한 지 벌써 두 해가 흘렀는데도 이 신세가 요모양 요꼴이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J는 물론이고 고시입문과 함께 떨어진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테니스코트의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러나 참기로 했다. '참을忍'자를 365번 밤새 써서 책상머리에 붙여 놓고 나약해지는 나를 질책하고 다그쳤다.

여름방학이 되자 캠퍼스는 한산해지고 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냉방시설이 안된 연구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일과 중 잠담시간이 많아졌다. 중대한 고비가 닥쳐온 것이다. 이 고비를 극복키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뜨거운 여름을 한국의 대 캠퍼스내에서 폭 썩기로 작정하고, 모든 유희를 마다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나 자신을 붙들어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낮에는 시원한 도서관을 이용하고 낮잠을 한 두 시간 자기도 하였다. 저녁에는 나태의 늪에 빠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학교앞 D헬스크럽에서 승우와 함께 운동으로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 무렵 선택과목을 국제사법에서 행정학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제2의 도피지로 행정대학원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사시 또는 행시를 길게 누울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여름도 다 가고 개학을 맞이하자, 대학캠퍼스는 다

시 화염병과 최루탄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시설개축 및 보수관계로 연구실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가 새로운 베이스캠프를 쳤다. 그러나 마음만 급했지 제대로 학습효과가 오르지 않았다. 매일 운동을 핑계삼아 관악산을 오르내리고 저녁에는 그 피로감으로 잠자기에 바빴다. 고시원을 몇 군데 옮겨다니며 기분전환을 꾀했으나 허사였다. 그러다가 9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에 함께 공부하던 태형이의 공작에 뜻이기는 척 엮여서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여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만남이 될 줄이야.

그뒤 나는 매일 주말을 기다리게 되었고 새로운 그리움과 설렘 속에 고시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현 상태를 자문하고 행동의 우선순이를 확실히 정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僥 역시 우리의 만남이 행여나 나의 수험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서서히 내마음 깊은 곳까지 자리잡고 있었으며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와의 만남 속에서 나는 합격에 대한 당위성과 자신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僥에게 편지를 쓰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중대사인 청춘사업과 고시공부가 모두 성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원했다.

10월이 되어서 고시학원에서 행정학과 경제학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표를 주단위로 편성하여 제1주는 국제법·국제경제학, 제2주는 국제정치학·미시경제학, 제3주는 거시경제학·국제경제학, 제4주는 국민윤리·행정

학 등으로 묶어 계속 돌려가며 공부하였다. 영어와 독어는 새벽과 식사 후에 각 한 시간씩 할애하여 소리내어 읽어 나갔다. 또한 한국외대 외시연구실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통하여 답안연습과 논점잡는 훈련을 하고, 고시 잡지는 최근 3년간의 고시 2차시험에 대한 교수님들의 채점평을 발췌복사하여 한권의 책으로 묶어 틈나는 대로 읽어보았다.

어느덧 내 고향 강원도 산간에는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의 行步를 재촉해 갈 때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체의 감정을 죽이고 철저한 이성율, 열정보다는 냉철을, 그리고 불확실성을 버리고 확고한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겨울을 이겨내는 자만이 외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이 되자 연구실 보수공사도 끝나서 다시 한국외대로 돌아와 2차준비생들이 모여 매주 토요일 그룹스터디를 하였다. 각자 문제를 출제하고 타인의 출제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을 해보고, 서로 발표하며 토론하는 형식으로 지루하고 정체되기 쉬운 고시공부에 활력과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저물어가는 1989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기필코 새해의 제24회 외무고시에서 떨어지지 말자고, 그리고 내년에는 인간 '여운기'를 나 자신에게 간절히 절규하였다.

VII. 1990년

해는 바뀌고 시험이 다가오자 마음은 더욱 급해지고 정신집중이 잘 안되었다. 뉘에게는 편지만 쓰고 시험 전에는 만나지 않기로 한 뒤 다시 고시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룹스터디는 꼭 참석키로 하였다.

2차 시험일자가 공고되었는데 선발인원이 35명으로 증원되어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였으나, 운명의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생각해 봤다. 지금부터 그날까지 시험만을 위한 생활이 나의 전부이다. 다른 것들은 사고의 범위에 넣지도 말자고 다짐했다.

외시에서는 시사적인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문과 방송뉴스를 접하는 시간을 늘렸다. 고시촌에 들어오면서 KH, 동아, 매경을 구독하였는데 특히 문제화 될 수 있는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하여 '정보관리'에 신경을 썼다.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뒤로부터는 소위 20일 작전을 세우고 논문과목에 대하여 문제될 만한 사항들을 골라가며 뛰어읽기(skipping)를 하였고, 어학과목은 시간나는 대로 한 패러 그래프 정도씩 답안을 써 보았다. 시험을 약 10여일 앞두고는 2차준비생끼리 모여 각 과목별로 예상문제를 20~30문씩 골라 제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러한 단합된 노력이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된다.

1990년 2월 27일 운명의 날은 밝았고, 나는 만원전철을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첫날의 영어와 국민윤리시험을 끝내고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들이 예년보다 쉽고 평이한 문제들이라는 직감이 들었고 최근 1, 2년 사이에 출제된 문제들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방향과 추출한 예상문제가 다소 방향이 빗나가고 있었다. 황급히 고시원에 돌아와 앞으로 3일간의 대비책을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기본서와 노트 중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할 수 없이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배합격자들의 말을 상기하며 밤 11시쯤 미련없이 저버렸다.

역시 짐작대로 계속된 4일간의 시험은 평이한 문제들과 최근 1, 2년 사이에 출제되었던 유사문제들도 가끔 나왔다. 마음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였으나 심혈을 기울려 기억을 더듬으면서 답안지를 메워 나갔다.

3월 3일 행정학시험을 끝으로 그 외롭고 춥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남은 것은 待天命 뿐이었다.

합격자 발표전날 외시연구실에 모여 한바탕 해프닝을 벌이면서 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뻐다. 나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중에 결과를 알아보니 국민윤리(66.66점), 영어(65.33점), 국제법(77.33점), 경제학(52.66점), 국제정치학(61.66점), 행정학(68.00점), 독일어(61.33점), 평균은 64.71점이었고 커트라인(61.00점)과 비교할 때 증원에 따른 행운합격이 아니라는 게 더욱 기뻐다. 물론 얼마 안되는 점수차이가 실제로 별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남다른 사정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 경제학과 어학과목에서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득점을 하여 당초 목표했던 고득점이 수포로 돌아가 아쉬움을 남겼다.

어쨌거나 나는 외시에 합격하였다는 기쁨을 다음날 서울신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끽하였고, 僑와 함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렇게 1990년의 출발은 환희와 송가와 함께 시작되었다.

며칠 후 2차합격자들이 연구실에 모여 면접시험을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여 하루 한 번씩 주제별로 집단토론연습을 하기로 하였다. 시간이 일주일 정도 밖에 없었으므로 새로운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조리있게 다듬고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실제로 면접시험에서 그 정도의 준비로 ‘말 더듬이’ 내지 ‘꿀먹은 병어리’ 노릇은 면할 수 있었다.

4월 18일 최종합격을 확인하고 비로소 지난날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할 수 있었다.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불확실성의 어두운 터널속을 무사히 빠져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동안의 모든 희생과 대가를 相殺할 수 있었다.

VIII. 끝을 맺으며

인생의 황금같은 청춘시대를 考試아닌 苦試의 명예를 스스로 눌러쓰고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과연 내가 걸어온 갈증에 존재하였던 것인지 솔직히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견디어 이겨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합리화로 분장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들의 시대가 유능한 외교관을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 세계로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맡겨지는 일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보아야겠다.

끝으로 외시의 공부방법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서술을 못하는데 대하여 천학 비재함을 용서바라며, 대신하여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拙筆을 줄이겠다.

우선 외시 해당교재의 결정과 공부에 앞서서 자신의 현주소와 목적지를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한 마디로 '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손자의 말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냉정한 자기평가와 시험의 난이도, 합격예상점, 출제위원들의 채점평 등에 대한 정보습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양자를 분석·검토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reasonable) 계획과 전략을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작업은 혼자만으론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자기외적인 근원으로 부터 수입·소화시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제위원들의 사고방식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현실문제에 민감하고 문제 의식을 갖도록 하자. 외시의 경우 시사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출제위원들 모두가 우리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와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단지 자신이 보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해당분야에서 사건

및 사실의 연관성을 찾고 사고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전 과목에 걸쳐 관계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 또는 교수님들도 보통의 상식을 지닌 상식인이므로, 또 고시의 성격상 특수한 문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위원들과 동일한 감각을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을 기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독학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개인의 생각은 오류가 많을 수 있고 균형을 잃기 쉽다. 그 오류는 또 오류를 낳고, 결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능률이다. 고시는 어디까지나 고시일 뿐이다. 학자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글짓기 경연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고시 나름대로 학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삼가 말하고 싶다.

아무쪼록 고시계에 입문한 수험생 제위께서 각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